

일 본 의 양 계 현 황

송 정 택

〈대한양계협회전무〉

다음은 대한양계협회 송정택 전무가 지난 4월 4일 일본 양계협회의 초청으로 방일해서 일본의 양계업계와 관련단체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월간양계의 독자를 위해 기고한 것이다. 약 20일간의 일본 양계업계의 시찰에서 보고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기고한 일본의 양계현황은 비록짧은 기간의 기행문이지만 일본의 양계협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 <편집자 주>

이번 日本養鷄 시찰목적은 3月 18日부터 20日 까지 3日間 兵庫縣(兵庫縣) 姫路(姫路市)에서 개최 되었던 第5回 日本養鷄產業展에 參席하여 여러가지 資料를 審集하여 特히 3月 19日에 同地에서 開催하기로 되었던 全國養鷄大會를 参觀하여 日本各地에서 모인各界各層의 養鷄人們 그리고 指導者들과 만나 그쪽의 實情을 좀더 幅 넓게 묻고 들으며 우리의 現況도 招介하여 兩國의 養鷄業界가 共同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點들을 打開하기 爲한 方法을 같이 討論하여 講究할 計劃이었으나 出國手續이 늦어져서 遺憾 스럽게 뜻을 이루지 못해 4月 4日에야 出國하게 되어 當初計劃했던 대로 滿足스러운 成果를 얻지 못하고 돌아 옴을 꺼 섭섭하게 生覺한다.

그러나 日本滯留期間中, 日本의 養鷄關係團體 그리고 養鷄關係 新聞 및 雜誌社와 한국에 다녀간 바 있는 養鷄關係 機關 및 會社의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더욱히 筆者가 보고 싶어 했으며 알고 싶어한 여러가지를 모두 親切하게 案內해주고 精誠의 도와 주신것이 무엇보다 고마웠고 짧은 時間이나마 飼料工場 도체處理場 種系農場 P.S農場 부로 일터 飼育農場 採卵農場 그리고 農林省의 日本鶏育種의 本山인 岡崎 種牧場까지 一應 見학을 할 수 있었음은 多幸한 일이 있다.

이제 筆者가 이번 旅行을 通하여 여러곳에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審集하여 온 資料와

各農場을 訪問할때마다 對話를 通하여 收錄한 것들을 綜合하여 整理하고자 한다.

日本 養鷄의 概要

採卵鷄의 飼養首數는 約 1億 2千萬首로써 계란 生產은 年間 約 300餘億個이며 1人當 年間 계란 消費量은 約 300個 程度로써 世界有數의 高水準이며 부로일러의 年間 生產首數는 約 4億餘首이며 老鷄가 約 6,000萬首 食用으로 市場에 출荷된다. 따라서 國내에서 提供되는 것만으로도 1人當 4首 以上을 消費하고 있다.

養鷄의 年間 生產액은 鷄卵이 約 3,658億圓으로써 全體 農業生產額의 7.3%이고 鷄肉은 約 1,365億圓으로 全體 農業生產額의 2.7%이고 보면 이들을 各 약한 餌食 출액이 約 5,000億圓이며 農業總生產의 10%라는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特히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肉用牛와 養豚을 合친 것 보다도 오히려 큰 比重을 갖고 있다.

이것은 即 日本의 養鷄는 日本의 경제 成長과 더불어 같이 生長하여 오늘날 國民의 食生活과 그만큼 密着되어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도 確固不動한 位置를 確保하고 있는 巨大產業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1>

農業總生產額

(單位億圓)

區	分	68年(比率)	'69年(比率)	'71年(比率)	'72年(比率)
耕種	谷類	13,691(44.1)	17,662(37.8)	15,655(34.3)	17,851(35.5)
	麥類	940 (3.0)	483 (1.0)	495 (1.1)	334 (0.7)
	雜穀	577 (1.9)	5.78 (1.2)	525 (1.1)	547 (1.1)
	豆類	793 (2.6)	781 (1.7)	678 (1.5)	653 (1.3)
	谷子	野果	3,744(12.1)	7,400(15.8)	7,233(15.8)
	花	藥實	2,100 (6.7)	3,965 (8.5)	4,018 (8.8)
	工	藝	192 (0.6)	425 (0.9)	497 (1.1)
	其	作物	1,534 (4.9)	2,040 (4.4)	2,116 (4.6)
	小	他	519 (1.7)	745 (1.6)	818 (1.8)
		計	24,090(77.6)	34,079(72.9)	32,036(70.2)
畜產	乳牛	287 (0.9)	506 (1.1)	564 (1.2)	592 (1.2)
	肉牛	376 (1.2)	965 (2.1)	1,048 (2.3)	1,289 (2.6)
	養豚	1,474 (4.7)	2,692 (5.8)	3,125 (6.8)	3,420 (6.8)
	食鷄	500 (1.6)	1,077 (2.3)	1,299 (2.8)	1,365 (2.7)
	鷄卵	2,005 (6.5)	3,157 (6.8)	3,322 (6.3)	3,658 (7.3)
	生乳	1,174 (3.8)	2,347 (5.0)	2,550 (5.6)	2,674 (4.3)
	其他	187 (0.6)	310 (0.7)	278 (0.6)	299 (0.5)
	小	計	4,004(19.3)	11,048(23.6)	12,187(26.7)
					13,297(26.4)
	養物	蠶	727 (2.3)	1,261 (2.7)	1,040 (2.3)
加工	農產	計	253 (0.8)	341 (0.7)	407 (0.9)
合			31,074	46,729	45,670
					50,164

그러나 最近엔 우리와 마찬가지로 世界的의 食糧의 需給不調의 餘波와 73年末부터의 石油等 에너지 資源의 規制로부터 派生된 關聯資材의 不足과 價格暴騰等에 依하여 양계經營은 매우 어려운 試鍊을 겪게 되었으며 오늘現在도 전통을 겪고 있다.

養鷄는 生產費의 大部分을 占하는 飼料原料에 大部分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海外로부터 輸入하여야 하는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世界的의 異류不足에서 부터 오는 打擊을 正面으로부터 맞고 이를 打開하기 為하여 政府로 부터 둑을 쌀, 보리 등을 緊急放出措置(飼料用으로 업가 轉用), 飼料價格 安定基金의 強化, 畜產經營 緊急融資 等 對策이 제때에 講求되어 一時的인 混亂은 어느 程度 완화 할 수는 있었겠으나 畜產業 自體를 安定시키기에는 未洽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生產者와 그들의 團體 政府가 모두 連續되는 不況을 打開하기 위한 長短期對策에 腹心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의 關心을 끌

만 한것이 需給調節(生產調節)이다. 이에 對한 것은 뒤에 다시 說明키로 하고 採卵과 부로일려 그리고 부화(종계 포함)를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採卵 鷄

飼養戶數는 約 20年前인 1955年度에는 450萬戶 이던것이 1960年에는 67萬戶(15%)가 減少, 1960年부터 1965년까지의 5年 동안에는 145萬戶(45%)가 減少되고 1970年부터 1973년까지의 最近 3年間에는 95萬戶(47%)가 減少하여 昨年末 現在로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萬 3千戶가 되었다.

여기서 關心을 기울일 것은 위 表에서 나타난바 대로 每年 生產量의 增加가 首數의 增加를 上廻하고 있다는 것과 最近도 亦是 生產量이 증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일 것은 飼養戶數의 減少는 계속 없어만 지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表 2>

年次別 飼養戸數와 飼養首數

年 次	飼 養 戶 數	成 鷄 (우) 首 數 (단위 1,000수)	鷄 卵 生 產 量 (단위 1,000개)
1955年	4,507,500(138.8)	39,588 (44.9)	6,742,780 (36.2)
1960	3,838,600(118.2)	44,500 (50.5)	9,559,606 (51.3)
1965	3,243,100(100.0)	88,090(100.0)	18,625,000(100.0)
1970	1,796,000 (55.3)	118,201(134.2)	29,975,000(161.0)
1971	1,368,000 (42.1)	123,906(140.6)	30,845,000(165.6)
1972	1,054,000 (32.5)	121,327(137.7)	30,524,000(163.9)
1973	843,000 (26.0)	121,004(137.3)	

※ ()는 1965년을 100으로 한 指數임

는 새로운 양계장이 新設되는 근년의 우리나라 現象과 마찬 가지 였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양계가의 탈락, 전업 또는 폐업자 수는 위에서 보여주는 숫자 보다는 더 많았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戶當 飼養首數는 表 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계속 增加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열핏 飼養首數의 확장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同期間內의 사양 호수의 激減을 감안한다면 飼養規模는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日本에 있어 채란업이 起伏이 甚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사료를 비롯한 생산자재의 앙등과 労賃, 환경오염 문제등 生產原價가 높아짐에 따라 原價節下를 爲한 갖가지努力이 傾注 되었으나 生產性 提高를 爲한 모든手段도 거이 限界點에 이르러 單位當 收益性의 低下를 防止하여 所得의 增大를 폐하기 爲하여 賣上을 높임으로써 經營을 改善하여 보고자 하는 結果, 大型化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表 3> 規模別 飼養戸數

	飼 養 戶 數		
	3,000首이상	5,000首이상	10,000首이상
1970年	6,516(100.0)	2,972(100.0)	947(100.0)
1971	7,288(111.5)	3,625(121.8)	1,213(128.1)
1972	8,194(125.4)	4,071(136.8)	1,398(147.6)
1973	8,947(136.9)	4,391(147.4)	1,680(177.4)

※ ()는 1970년을 100으로 한 指數임

畜種別 飼養頭首의 推移

사양 규모의 格差가甚한 것은 비단 채란계뿐만 아니라 他 축종도 마찬 가지인 모양이나 그중에서도 채란계가 가장 심한데 表 4를 參考로 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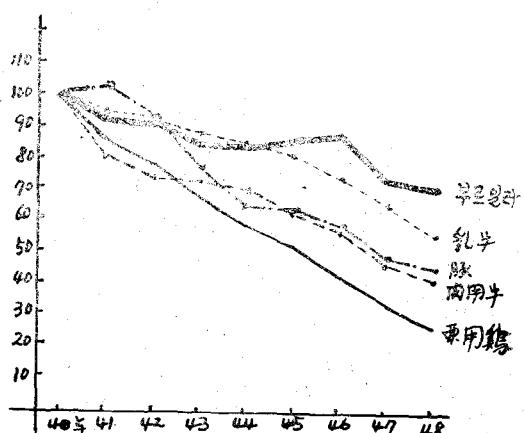
<表 4> 畜種別 一定規模以上의 飼養戸數

區 分	增減會岐 點이 되는 頭首數	飼 養 戶 數		飼 養 頭 首 數	
		戶 數	總戶數 對 比	頭(首)數	總戶數 對 比
乳 牛	15頭以上	22,795	10.8%	709,725	39.9%
肉用牛	5頭以上	68,049	11.6	924,001	51.5
肥育豚	100頭以 上	11,550	6.2	3,211,242	55.9
採卵鷄	3,000首 以上	15,018	1.8	75,678	63.1
부로일러	年間 3萬 首 "	3,390	20.0	232,542	60.8

부로일러

사양호수 1965年の 부로일러 사양호수는 20,

<表 5> 育種별 사양호수의 動向



490戶 이던것이 1970年에는 14,500戶로써 약 6,000戶(30%)가 減少되었다. 이는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감소율이 낮다.

사양 수수 1965年(2月) 1,830萬首 이던것이 1973年(2月)에는 8,018萬首로써 약 4.4倍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1970年에는 266,513千首.

1971年에는 328,902 "

1972年에는 382,807 " 를 생산했으며

1973年에는 4億首 以上을 생산했을 것이라 한다.

규모별 사양호수와 출하수수의 비율을 보면 10萬數 이상의 사양호수는 454戶로써 2.7%에 불과 하지만 출하 수수는 9,000萬수로써 23.4

%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1萬수~3萬수 미만의 사양호수는 전체 사양호수의 36.5%이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29.7%를 차지하고 있다.

출하 체중

년차별로 출하체중의 동향을 조사하여 보면 1967년도의 평균체중 1.4kg이던 것이 1970년에는 1.6kg 1972년에는 1.8kg가되고 1973년에는 1.85kg로 커졌다.

월별 출하 체중의 동향은 4~5월 출하 되는 것이 크고 8월 것이 체중이 가장 낮다.

계절적인 가격 변동은 表 6을 참고 바란다.

<表 6>

畜產物의 季節別 價格變動

1972年 農產物가 임금조사

區 分	유 우 (10kg)	우 비육우 (생체 10kg)	거세비육우 (생체 10kg)	육 돈 (생체 10kg)	부로일터 (생체 10kg)	계 탄 (10kg)
비싼달 가격	12월 535圓	12월 5,644圓	12월 5,809圓	7월 2,935圓	1월 1,982圓	12월 2,475圓
싼달 가격	7월 526圓	6월 4,665圓	5월 4,671圓	2월 2,677圓	6월 61,81圓	7월 1,656圓
A/B	101.7	121.0	124.4	109.7	111.3	149.5

부화

농림성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73년 2월 1일 현재의 부화업자는 618명(이중 등록 부화업자는 560명)으로서 72년도의 737명(등록 672명)에 비하여 16%(同 등록 17%)의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해마다 부화 업자의 數는 줄어들고 있고 72년도에는 이를 중 44개 업자가 년중 부화를 중지하고 있었으며 금후 부화 업자의 數는 減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年度別 부화업자의 戶數와 減少率을 보면

65년	1,312戶	
70"	917"	減 395
71"	820"	87
72"	737"	83
73"	618"	112로서

65년도의 戶數와 對比하여 본다면 73년에 와서는 47%가 남았음을 알 수 있다.

產卵能力

입란 능력에도 많은 變化가 생겼다. 즉 70년도 까지는 입란능력에 있어서 5~10萬卵層을增減의 分岐點으로 하였었으나 이듬해인 71년에는 20萬~50萬卵層으로 올라가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화장의 규모 및 구성

73년 현재의 부화장 규모별 구성을 보면

2萬卵 未滿	30戶	全體의	5.9%
5萬~10萬卵	113"	" "	18.6%
10萬~20萬"	144"	" "	23.8%
20萬~50萬"	143"	" "	23.6%
50萬~100萬"	47"	" "	7.8%
100萬以上	12"	" "	2.0%

의 構成比를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전술(前述) 한대로 44개 업자가 (전체의 7% 해당) 操業을 않고 쉬었으므로 實質稼動 부화업자는 574개 업자이다.

또 경영 성분을 보면	
總合農協	14
華門農協	26
任意團體	2
會 社	309
個 人	227
農事組合法人	5
農協連	12
其 他	230) 며

用途(種別) 構成은

卵 用	225
肉 用	188
卵肉(兼業)	121

나머지는 不明

種鷄別로 取扱을 보면

外國鷄	387戶
國 產	122"
外國鷄와 國產鷄混用	50"
나머지는 不明	

直營 種鷄場을 갖고 있는 부화장이 450戶이며 없는 부화장이 124戶이다.

종 계

73년 2월 1일 현재로 4,304戶를 전년도의 5,230戶에 비하면 18%가 감소되었다.

增減의 規模分岐點은 2,000首가 된다.

종계장의 構成比를 보면

100~ 500首	1,639戶(全體의 39.1%)
500~1,000"	73.4" " 17.1"
1,000~ 2,000"	792" " 18.4"
2,000~ 5,000"	628" " 14.6"
5,000~10,000"	274" " 6.4"
10,000~20,000"	141" " 3.3"
20,000首이상	96" " 2.2"

種鷄首數

9,464,574首로써 품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색 레구흔 2,540,101首(全體의 26.8%)

황반 푸리마스록	83,484"	"	0.9"
로이드 아일랜드	68,716"	"	0.7"
뉴-햄프셔	9,801"	"	0.1"
백색 록크	2,148,672"	"	22.8"
기타 난용	1,585,923"	"	159"
" 육종	2,695,354"	"	28.5"

이다.

養鷄 危機突破 全國大會

3月 19日에 열렸던 “양계위기 돌파 전국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이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결의문)이 전국에서 통인 약 4,000명의 양계인들에 의하여 채택 되었다.

1. 飼料價格의 確保와 飼料價格 昂騰에 對한 緊急 對策을 세울것

가. 飼料 價格의 引下

작년 3차에 결친 사료가격 인상에 이어 금년 2월 다시 인상 하였는데 인상 이유로는 ① 사료 원료가격의 인상 ②해상 운임의 앙동 ③ 환율의 변동인데 양계인들의 불신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료제조 업자들의 수입량, 재고량, 국제원료의 수급 동향, 시장 상황의 추이, 해상 운임등 계수(係數)의 해명과 활용의 추이와 수입실적과의 관련을 규명 함과 아울러 사료업계 자체의 제조, 수송등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 하여 사료 가격을 인하 하도록 정부는 행정 치도를 강화 하여야 한다.

다. 飼料價格 安定基金, 畜產經營 特別融資 의 強化擴充

다. 飼料原料의 國內生產의 推進

사료의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는 사료의 비축과 수입원의 다원화, 개발 수입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위 국제 분업론을 수정하고, 국내 사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飼料品質의 低下防止

사료가격의 앙동과 더불어 사료의 품질이

제한 되었는데, 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영 면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 배합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품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2. 鷄卵肉의 適正價格의 實現을 期할것

가. 生產費 補償方式에 依한 價格形成

쌀, 우유, 돈육등은 법률, 가격 안정 제도 등에 의하여 생산자 가격이 안정 되어 있지만 양계 생산물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지배되고 있었다. 정부는 가격 형성과 유통에 대하여抜本的인 제도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生產費에 밀지지 않는 價格維持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비 실태를 밝히고 지금까지의 저렴한 값의 이미지를 전환 시켜 생산원가가 올랐을 때 이에 맞추는 시장가격이 유지 되도록, 하수업자(荷受業者), 일반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도록 소비 확대를 포함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 生產者 販賣能力의 培養과 生產者의 價格形成에의 介入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이 생산자가 납득할 수 있게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3. 鷄卵의 需給調整를 推進할것

가. 養雞 關聯 事業界의 協調

계란의 수급조정은 부화업계, 사료업계 등 양계 관련업계의 협조 없이는 충분한 성과를 겸우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혼란을 야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업계내의 조직적인 협조를 열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畜產經營 特別 融資等의 債還期間의 延長

수급조정에 협력하는 생산자는 축산 경영 특별자금, 제도자금등의 차입금 문제에 대하여는 경영이 극히 불안정하므로, 상환기한 연장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卵價 安定基金制度의 擴充 強化

현재 계란가격 안정 기금 제도의 운영은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대폭적인 보충 준비금을 예산화하고 기준 가격을 인상하고 계란의 수급조정과 관련시켜 기금가입을 적극적으로 조정시켜 기금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鷄卵의 輸入規制

동결란등 가공란의 수입은 국내 계란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바 계란 수급 조정 실시의 전체 조건으로 수입이 규제되어야 한다.

마. 全國 液卵公社의 機能의 擴大

계란은 계절적인 변동이 큰데, 더욱이 하절기의 하락은 현저하다. 액란공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난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4. 養雞經營 安定法을 制定 할 것

가. 現狀 首數의 凍結

양계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계란 생산이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천 조처로써 현상대로 사양 수수를 동결한다.

나. 調整委員會의 設置

생산 조절을 실시하기 위한 기구로써 계란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都, 道府縣에 지부를 둔다) 이 위원회는 생산자 대표와 정부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며 운영에 있어서는 소비자 대표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다. 許可制의 實施

모든 생산자, 부화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한다.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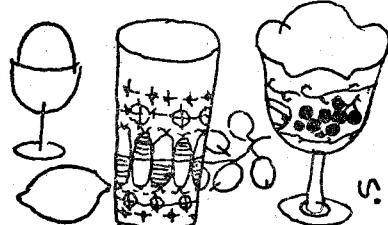
일본의 인구는 우리의 약 3배이지만 양계 산물의 생산은 우리의 약 10배나 되는 양계 선진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 크

기에 비례하여 복잡하고 어려움이 큰 것인지도 모른다. 지면의 제한 때문에 짚게 설명은 드릴 수 없으나 사료문제, 질병문제, 공해문제 등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골치 덩어리 투성이이다. 새로 안정 기금의 보전 기준 가격을 개정하는데 있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270원으로 결정을 보았다고 보도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뒤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돈이 소요 될에 따라 정부의 관계관들은 머리가 아파 모양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주목 하겠다.

참으로 계란의 생산원가를 살펴 본다면 kg 당 340圓(약 470원) 실이 있는가 하면 230圓(약 320원)이면 된다는 양계인도 있다. 실로 kg당 110圓(약 150원)의 대차이다. 대체적으로 300圓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배적인 모양인데 이번의 270圓선으로 안정기금 보전기준 가격이 결정된 것이 뒷 밭침 해 주는 것 같다.

이제 kg당 300圓을 갖고 풀이 해 보면 대란으로 1개당 약 24원 50전이다. 위의 숫자를 보면 우리와의 여러가지 여전의 차이가 짐작이 잘 것으로 믿고 끝으로 우리로 써는 우리보다 여로모로 앞서 있는 그들의 훌륭한 점(안정 기금 제도, 액관공사등)을 연구하는 한편 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홀했기 때문에 골몰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연구 분석하면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 게재한 통계는 일본농림성에서 발표한 숫자임을 부기함).



회소식

◎ 첨 가 제

◎ 예 방 약

◎ 치 료 약

◎ 백 신

◎ 소 독 약

최신의 학술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청량리가족약품센터

(한국육계회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58

TEL. 96-8780

